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윤_수 |
| 파견국가 | 미국 | 파견도시 | Columbus, Ohio |
| 파견대학 | The Ohio State University | 파견기간 | 총 2학기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오하이오 주립대는 미국에서 주민이 가장 많다는 Ohio주의 Columbus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도 많아 캠퍼스 규모가 미국 내에서도 정말 크다고 알려져 있고, 학생들의 편의와 학업을 위한 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p> <p>학교 분위기는 여느 미국학교들과 같이 정말 활발합니다.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학업, 운동, 여가생활에 모두 적극적입니다. 또한 국제학생들도 많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환경입니다.</p> |
| 2016-2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일단 말해두고 싶은 것은, 미국학교는 중간기말이 과목마다 일정도 다르고, 횟수도 다릅니다. 중간고사는 일반적인 lecture의 경우 2번 정도 있고, 기말은 마지막에 한 번 있습니다. 또한 OSU의 경우 학교에 Carmen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과목별로 페이지가 만들어져 모든 일정과 과제, 퀴즈, 점수 등의 시행,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퀴즈들은 대부분 이 Carmen에서나 수업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외로 대부분 과목들이 essay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p> |

Jazz Dance (DANCE 1141)

-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없고, 출석과 참여도, 과제로 평가되는 수업입니다. 처음 재즈댄스를 배워서 걱정했는데, 수업 분위기도 좋을 뿐 아니라,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학생들과도 서로 함께 춤추며 친해져서 정말 좋았던 수업입니다.

Intro to Philosophy (PHILOS 1100)

- Intro 수업이라 강의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Ph.D 강사가 가르쳤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다면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철학이 한글로도 배우기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제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니 강사분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끝까지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지식도 많이 쌓이고 뿌듯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중간 3번, 기말 1번, 그 외 읽기과제, 주 1회 퀴즈, 에세이 2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lassical Mythology (CLAS 2220)

-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아서 들은 강의였는데, 학생들이 거의 700명 넘게 있었던 대형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재미있으셔서 저는 정말 즐겁게 들었고, 몰랐던 신화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Textbook이 130달러여서 충격을 받고 구매했지만, 책이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idterm 2번, Final 1번, Essay 3번, 그 외 주 1회 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강의여서 출석체크는 수업 마지막에 나오는 정답으로 Carmen에 올려져있는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Chinese Drama (CHINESE 4404)

- 유일하게 들었던 4학년 과목이었는데, 사실 중국의 현대드라마를 생각하고 들었지만 알고 보니 중국 고대의 희극, 연극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이 딱히 없어서 그나마 괜찮았고, 매주 새로운

| | |
|-------------|---|
| | <p>연극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연극 대본을 읽고 오는 것이 매주 과제였습니다. 시험 대신 Group Activity와 Final Essay가 있었는데, Group Activity는 그룹 별로 대본을 하나 정해서 연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Final Essay는 자신이 중국 연극 하나를 정해서 분석하는 10장짜리 에세이였습니다.</p> <p><u>Chinese 1103.51(Level 2.1: II class)</u></p> <p>- 중어중문학과이다 보니 중국어 수업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어 공부를 미국에서도 해야 할 것 같아 수강한 강의입니다. Instructor와 1:1로 진행되는 강의였고, 수업 전 미리 예약페이지를 통해 수업을 스스로 예약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청한 학점에 따라 총 들어야 하는 수업의 횟수가 달라지고, 한 번 수업은 15분씩 진행됩니다. 수업은 Textbook에 있는 대화를 미리 연습, 표현을 암기하고 가서 instructor와 대화하면 instructor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커리큘럼 중간 중간에는 듣고 받아쓰는 writing 시험도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는 Instructor들이 다들 친절하고, 틀린 문법이나 표현, 단어들을 잘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간기말은 따로 없습니다.</p> |
| 2017-1학기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u>Western Art 2 (HISART 2002)</u></p> <p>-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들었던 과목이어서 저는 정말 만족한 과목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을 시기와 예술가들 별로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Instructor가 두 분이여서 강의 커리큘럼을 반으로 나눠 instructor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중 배웠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비교 또는 분석하고 그 내용을 에세이로 쓰는 것이 중간, 기말고사로 출제됩니다. Textbook이 따로 없고 출석체크도 없지만, 제공되는 슬라이드 노트에는 예술작품의 그림, 이름 제목 외에는 수업 중 다루는 내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시험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듣고 학기가 끝난 뒤에 여행을 하며 여러 미술관들을 다녔는데, 배운 예술품들을 정말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p> |

뿌듯했던 강의입니다.

Line Dance (KNSFHP 1152.07)

- Jazz Dance 강의를 들은 뒤로 다른 Dance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 수강한 과목이었고,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댄스 이름처럼 Line에 맞추어 다함께 추는 컨트리 댄스를 배우는 강의였는데, 교수님이 쉽게 잘 가르쳐주시고 학생들도 활기차서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기말고사가 Carmen에서 진행되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모여 같이 풀었고, 문제도 10문제여서 시험보다는 퀴즈에 가까웠습니다. 그 외에는 출석과 참여도가 중요했던 수업이었습니다.

Self Defense Women (KNSFHP 1172.01)

- 평소 호신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대학교에서는 듣기 어려운 과목이었어서 들은 과목이었고, 역시 만족한 강의입니다. 강의명대로 여교수님께 여학생들이 배우는 호신술 과목이며, physical self defense부터 verbal self defense까지 배워 여학생이 듣는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따로 없으며, 그만큼 출석과 참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세 번의 Essay가 있지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짧은 과제였습니다.

Positive Psychology (PSYCH 2303)

- 강의명대로 긍정심리학을 배우는 강의인데,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긍정심리가 다뤄졌으며, 교수님이 매우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출석체크가 랜덤으로 이루어졌고 비중이 낮았지만 학생들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120명 정원 중 심리학 전공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던 수업이었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흥미로울 수업입니다. 시험은 중간 2번, 기말 1번이었고, 학기 중 5번 정도의 짧은 Essay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배울 것이 많은 과목입니다.

Criminology (SOCIOL 2370)

- Criminology에 관심이 많아 들은 과목이었고, 역시 배운 것이 많은 과목입니다. 학생은 60명 정도 됐었고, 교수님은 경찰 쪽에서

| | |
|---------|--|
| | <p>근무하시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Textbook과 슬라이드 노트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커리큘럼 중간 중간 수업시간에 봤던 영상으로 감상문을 적는 것이 출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수업은 아무래도 미국의 criminology에 집중되어있었지만, 범죄학 전문용어나 미국에서의 범죄 사례 등을 배우기에 좋았습니다. 시험은 중간 2번, 기말 1번이었으며, Textbook이나 슬라이드 노트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이 수월했던 과목이었습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오하이오 주립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만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도 domestic students와 구분지어 international students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집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꼼꼼히 학교생활 시 주의사항들이나 학교와 지역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줍니다. 또한 전체 international students를 위한 오티 후에 교환학생들은 교환학생 담당자와의 작은 오티 시간도 가졌는데, 이때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교환학생들 소개, 궁금한 점이나 수강신청에 대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p> <p>국제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은 OIA(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그중 교환학생들은 따로 관리되며, 교환학생부서의 담당자는 Caroline입니다. Caroline은 교환학생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며,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물어보면 자세히 잘 대답해줍니다. 교환학생들끼리의 시간도 마련해주었는데, 첫 번째 학기에는 2-3주에 한번 씩 가지는 Snack Hour, 두 번째 학기에는 Game Night으로 다른 교환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p> <p>또한 OIA에서 제공하는 ECP(English Conversation Program)도 있는데, international students와 외국에 관심이 있는 domestic students들이 그룹으로 묶여 함께 미팅도 가지고 OIA에서 주최하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매일 매일의 날씨는 정말 변동이 심합니다. Ohio와 Columbus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만큼 날씨를 예측하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어제가 따뜻하고 맑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렇다고 예상할 수 없고, 당일 아침 날씨와 저녁 날씨가 확연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한국보다 더 햇빛이 쨍쨍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한국보다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눈이 오긴 하지만 아주 차이가 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p> |
| 안전 | <p><i>현지 안전 상황</i></p> <p>사실 Columbus에 있으면서 사건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총기사고 한차례, 그 외에는 여러 차례 보도된 강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가 크다보니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 즉시 학교에서 바로 이메일과 문자로 safety notice를 전 학생들에게 보냈고, 그래서 더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p> <p>참고로 총기사고 때에는 학교의 모든 수업들이 취소되었고, 학교 담당자들은 학생들을 지하 강의실과 은신처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경찰들도 바로 출동하여 대처하였고, 학생들이 사고지역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p> |
| 숙소 |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Autumn Semester에 신입생이 너무 많아서 기숙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Off-campus 숙소를 17년 5월까지 계약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외부 숙소를 출국 전에 구하려다보니 힘든 점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Caroline이 보내준 Off-campus property 리스트 중 한 곳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계약하고 거실과 부엌, 화장실은 공유하는 형태인데, 룸메이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의 경우 Property manager가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나 얘기할 때 이메일을 주고받기</p> |

| | |
|----|--|
| | <p>편했습니다만, 계약 전에 인터넷으로 집 사진 위주로 보고, 위치를 대강 추측했다보니 실제 캠퍼스를 다닐 때 약간의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외부 property를 고민하신다면, 위치적으로 캠퍼스와 가까운 곳이 생활하기에도, 친구들과 놀기에도 정말 편합니다. 만약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는 저렴한 곳으로 계약할 생각이라면 CABS 버스나 COTA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
| 식사 | <p><i>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에 살면 Meal Plan이 의무이지만 저는 아니었기도 하고, Meal Plan이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에는 학교 Traditions나 High Street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했습니다.</p> <p>2학기 때에는 학교 Traditions at Scott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하기 전 하루 한 끼를 무료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식사는 역시 집에서 해먹거나, 친구들과 식당에서 먹었습니다.</p> |
| 교통 |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운동하고 싶을 땐 걸어서 캠퍼스에 갈 때도 있었지만, 주로 집 앞에 있는 CABS 나 COTA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CABS는 학교 통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버스인데, 요금 없이 운행하는 학교 버스이고, OSU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와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COTA bus는 Columbus 버스인데, Downtown이나 학교 주변 등으로 향하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순천향대에 내고 가는 등록금 말고 OSU에 학기마다 내야하는 기본 Fee들이 있는데, COTA bus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증인 BuckID를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약

14,310,000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 | | |
|--|---|---|
| 항공료 | 편도 120만원 X 2번 | 약 ₩2,400,000 |
| Fees & 보험료 : 학기 시작 전마다 냅니다. | <p>학교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Student fee \$1,377.00</p> <p>Non-Resident Fee undergraduate \$5.00</p> <p>COTA Bus Service Fee \$13.50</p> <p>Student Activity Fee Undergraduate \$37.50</p> <p>Student Union Facility Fee \$74.40</p> <p>Recreational Fee \$123.00</p> | <p>\$1,630.40 X 2(두 학기)</p> <p>= \$3,260.80</p> <p>= 약 ₩3,680,000</p> |
| 숙소 | <p>Off campus housing</p> <p>매달 rent \$480 + utility 약 \$85</p> <p>\$565 X 10달(8월~5월)</p> | <p>\$5,650</p> <p>약 ₩6,380,000</p> |
| 식비 | <p>생활비에서 인터넷이랑 핸드폰비, 가끔 책값을 빼면 한 달 \$40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40 X 10개월</p> | <p>\$400.00</p> <p>= 약 ₩450,000</p> |
| 교통비 | Fee에서 이미 이용료 다 냈던 COTA 버스로 이동 | X |
| 책값 | <p>강의 별로 상이하지만, 두꺼운 전공서적들은 1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의 경우엔 비싼 전공서적 많이 없어서 첫 학기는 \$230정도, 두 번째 학기는 \$100 정도입니다.</p> | <p>\$330.00</p> <p>= 약 ₩380,000</p> |
| 인터넷비 | <p>집에 설치가 돼있고 룸메들도 비싼 값에 사용을 꺼려해서 혼자 설치하고 돈을 부담했습니다. (11월부터 사용)</p> <p>Time Warner Cable</p> <p>첫 설치비 약 \$40.00</p> <p>매달 \$60.74 X 7개월 = 약 \$426.00</p> | <p>\$466.00</p> <p>= 약 ₩530,000</p> |
| 핸드폰비 | <p>T Mobile</p> <p>\$43.00 X 10개월 = \$430.00</p> | <p>\$430.00</p> <p>= 약 ₩490,000</p>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교환학생에 가기 전 먼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교환학생 비용도 다른 유학비용만큼이나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천향대로 내는 tuition fee 말고도 학기별로 Fee들을 내야하는데, OSU의 경우 모든 시설들이 정말 최고라 할 만큼 잘 갖추어져 있어서 Fee도 한 학기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상당합니다. 또한 그 외로 항공료, 생활비, 교재비, 학교 보험료(OSU의 경우 포함), 출국 전 각종 예방접종 등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더 확실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문에 각종 재단들에서 지급하는 교환학생 장학금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1년 간 살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 간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거주하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가까이 살면,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다 돌아가기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Off Campus인데 캠퍼스와 거리가 있을 경우, CABS나 COTA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Meal Plan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Off campus였기 때문에 요리를 해먹을 생각으로 Meal Plan을 신청하지 않았습디만,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Meal Plan이 필수이고, 그 가격도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OSU Meal Plan의 경우, 학교 내 3개의 Traditions와 Market들에서 음식을 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Meal plan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은 다들 비슷한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순천향대에서 보내는 미국 교환학생의 경우 1년 프로그램인 만큼, 오로지 놀러가기 위한 목적인 경우 미국 교환학생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제 전공인 중어중문학과와 무관하지만, 제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Criminology, Psychology를 정말 배우고 싶었고, 이것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실제로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뚜렷한 목표와 이유가 있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즐길 자신이 있다면 정말로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뿌듯한 생활을 하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사실 두 학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니, 벌써 아쉽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리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1년이 긴 시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기에 가장 적당한 기간이면서도 한국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의 교환학생 생활의 경우, 가을학기과 봄학기의 생활이 명확히 달랐지만 두 학기 모두 즐겁고 보람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을학기는 새로운 미국 문화, 미국 캠퍼스, 미국 수업에 즐겁게 적응했던 학기였고, 봄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거의 영어를 사용했고 수업과 캠퍼스 생활을 즐겼던 학기였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홀로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활공간, 새로운 수업방식, 새로운 친구들 등.. 그래도 처음 갔 도착했을 때 좋은 룸메들과 주위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아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들에 있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강 후에는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수업을 이해해야하는데 필기하기는 어렵고, 각종 퀴즈에 시험, 에세이까지 모든 것이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다보니 그 역시 익숙해졌고 저만의 방법도 터득하여 나중에는 초반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저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던 강의들이어서 그런지 강의가 어려울수록 더 이해하려는 욕심이 생겼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업과 영어에 적응을 한 뒤, 봄학기에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여행경비도 마련할 겸 학교 내 학생 뷔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떨렸지만, 점차 일하는 다른 학생들, 셰프들과 친해지고 영어에 점점 자신감도 더 생기면서 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정말 친해진 외국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더 많이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실용적인 대화도 많이 익혔습니다. 물론 학업과 병행하느라 주중에는 여가시간이 정말 없긴 했지만, 그만큼 저에겐 정말 뿌듯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갔다 온 뒤로 제가 관심이 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뚜렷해졌습니다. 해외봉사, 여행, 언어 공부, 인턴십 등등.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놓았던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름방학에는 영어 공부를 계속 하여 토익, 토플 시험을 다시 볼 생각입니다. 저의 전공인 중국어도 계속 공부하여 2학기 내로 HSK 5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고 언어에 관심이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어 등 여러 언어들을 틈틈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면에서의 재능기부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개강 후에는 복수전공인 경찰행정학과와 전공들을 두 학기동안 들어 채우고, 졸업전후로 경찰공무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역시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틈틈이 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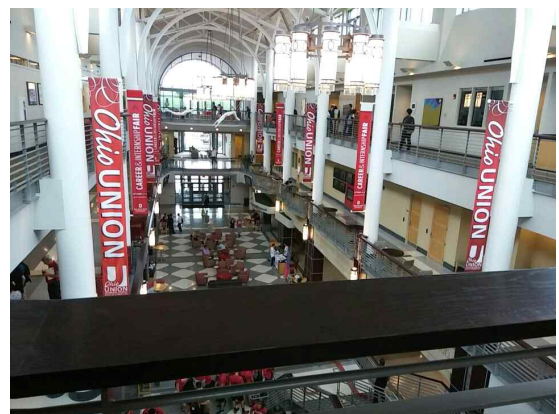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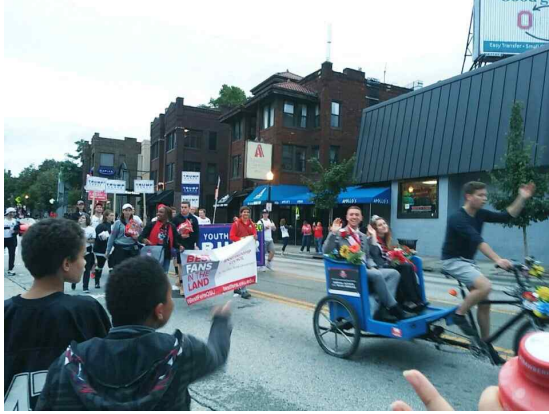
Jazz Dance 마지막 강의 후 다같이



ECP 그룹 멤버들과 모임 후 찍은 사진



International students를 위한 본 졸업식 전 수료식?인데
얼떨결에 졸업으로 등록되어 친구들과 찍은 사진



High Street에서 매년 열리는 학교 전통
Parade 중 한 장면

처음 갔을 때의 Ohio Union



Scott에서 일할 때 썼던 name tag